

AUTHOR 김철웅

TITLE 갈뱅의 5대 강령을 통해 본 선교신학
-TULIP Missiology의 가능성 모색-

IN 선교와 신학
vol.21 (spring, 2008):163-191

갈뱅의 5대 강령을 통해 본 선교신학 - TULIP Missiology의 가능성 모색 -

김 철 응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칼빈주의는 선교신학을 죽이는 신학이다?
- III. 칼빈주의와 선교신학의 접촉점
- IV. 칼빈주의의 중심 개념
- V. 선교신학의 중심 개념
- VI. 똑같은 토양: 하나님의 주권
그러나 두 가지 나무: 구원과 선교
- VII. 칼빈주의 선교신학: TULIP 선교신학
- VIII. 나가는 말

● ●
김철응 목사는 서울장신대학교 신학과, 장로회신학대학교(M.Div. & Th.M.: 한국교회사), 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M.A.T.S.: 교차문화학), Concordia Theological Seminary(Ph.D. in Missiology: 음악선교학)에서 수학하였다. 현재는 미국 뉴저지 초대교회 부목사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추적! 사도 바울의 16년』 (쿰란출판사, 2007)이 있다.

■ 논문 초록 ■

칼빈주의(Calvinism)를 통한 선교신학(Missiology)은 가능한가?

이 질문은 이 때까지 마치 조직신학의 전유물(專有物)만으로 여겨진 칼빈주의를 선교신학이라는 관점에서 재분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이다. 다시 말하면 '칼빈주의 선교신학' (Missiology on Calvinism)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다.

이 때까지 칼빈주의는 조직신학의 입장에서는 많이 연구되어 왔지만, 특별히 선교신학의 측면에서 분석한 학문적 사례(事例)는 거의 드물다. 왜냐하면 칼빈주의 연구는 우선 조직신학 분야에 속한 것이라는 고정 관념 때문이고, 더욱이 예정론에 대한 오해 때문에 칼빈주의는 선교신학에 아무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무의미한 교리라는 종전의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筆者)는 이 논서(論書)를 통하여 칼빈주의가 선교신학에 해로운 교리라는 종전의 왜곡된 고정 관념을 깨고 더 나아가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는 선교신학적 의미와 그 가치를 밝히려 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칼빈주의는 선교와 전도의 열정을 방해하는 교리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선교와 전도를 강화시키는 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많은 칼빈주의자들의 변호에도 불구하고 칼빈주의는 선교신학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그 이유 중 하나는 그 모든 변호가 칼빈주의와 선교신학을 제대로 연결시켜 주는 '신학적 접촉점' (a theological point of contact)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시된 변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칼빈주의 5대 교리와 선교신학을 하나의 맥(脈)으로 이어 주는 신학적 접촉점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 신학적 접촉점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神之主權: Sovereignty of God)이다.

칼빈주의의 중심 개념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칼빈주의의 중심 개념을 이중 예정론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칼빈주의의 핵심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칼빈주의 5대 교리의 핵심 주제는 이중 예정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神之主權: Sovereignty of God)이다. 여기에 칼빈주의의 중심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 나타나는 반전(反轉)이 있다. 이중 예정론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신학적 산물(a theological outcome)이며, 논리적 귀결점(a logical terminal)이고, 동시에 최종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a process for the destination)이지, 결코 칼빈주의 5대 교리의 근본 주제는 아니다. 따라서 이중 예정론은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핵심을 잘 드러내도록 인도하는 촉매제(觸媒劑)이다.

그렇다면 선교신학의 중심 개념은 무엇인가? 바로 '미시오 데이' (Missio Dei: The Mission of God: 하나님의 선교)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선교신학자들은 선교신학의 신학의 중심점을 이 'Missio Dei'에서 찾고 있다. 글자 그대로 'Missio Dei'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교로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교 사역을 강조한 신학 개념이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그 중심 개념이다. 'Missio Dei'의 중심 의미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교라는 주장은 구원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임을 주장하는 칼빈주의 교리와 완전히 동일한 선상에서 서 있는 말이다. 다만 칼빈주의는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고, 'Missio Dei'는 '선교'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칼빈주의는 '구원의 주권'이며 'Missio Dei'는 '선교의 주권'이다. '구원'과 '선교'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들어 있는 것이다. 칼빈주의와 선교신학은 똑같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토양(土壤)에서 자라난 나무들이다. 그런데 칼빈주의 교리라는 나무는 자라는 과정에서 'TULIP'이라는 다섯 가지를 뺀게 되었고, 선교신학이라고 하는 나무는

‘Missio Dei’라는 줄기를 타고 자라난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주의와 선교 신학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또한 둘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해 속에서 상호 보완하며 협력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권 속의 칼빈주의와 선교신학’이라는 이러한 관계성은 우리로 하여금 이른바 ‘칼빈주의 선교신학’(Calvinistic Missiology) 또는 ‘튤립 선교신학’(TULIP Missiology)이라는 새로운 신학 용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그래서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 용어가 이제는 선교신학 분야에서도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되기를 바란다. 이제 칼빈주의가 우리의 선교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교리라는 종전의 잘못된 해석과 인식은 배격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신학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바로 ‘칼빈주의 선교신학’ 즉 ‘튤립 선교신학’이다. 

주제어

칼뱅, 칼빈주의, 선교신학,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주권, 예정론

I. 들어가는 말

칼빈주의(Calvinism)를 통한 선교신학(Missiology)은 가능한가?”

이 질문은 이 때까지 조직신학의 전유물(專有物)처럼 여겨 온 칼빈주의를 선교신학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재분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질문이다. 바로 ‘칼빈주의 선교신학’(Missiology on Calvinism) 또는 ‘튤립 선교신학’(TULIP Missiology)의 가능성을 모색(摸索)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이다.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뱅(John Calvin)에서 출발하여 그의 후예들에 의해 정립된 칼빈주의는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온 신학 사조(神學思潮) 가운데 하나이다. 이 과정에서 칼빈주의와 관련된 모든 논쟁은 일반적으로 조직신학의 측면에서 다루어졌으며, 특별히 구원론의 입장에 그 논쟁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때까지 칼빈주의는 구원론의 입장에서는 많이 연구되어 왔지만, 그 외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연구가 희박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별히 칼빈주의를 선교신학의 측면에서 분석한 학문적 사례(事例)는 거의 드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광신대학교 최정만 교수는 칼빈주의와 선교신학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쓴 연구 문서가 거의 전무(全無)하다고 푸념했을 정도이다.¹⁾ 그렇다면 왜 그런가? 왜 칼빈주의는 선교신학적 측면에서 연구되지 않았는가? 정말 칼빈주의는 선교신학과 아무런 관

1) 필자가 정의하고 있는 선교신학(missiology)이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지닌 사람들(missionaries)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mission)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분야(missions)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인도하는 통합적 학문(a multi-discipline academic study)이다. 즉, 선교신학(missiology)이란 선교사(missionaires)와 선교(mission) 그리고 선교들(missions)을 통합하는 신학적 학문(academic studying)이다.

2) 최정만, 『칼뱅의 선교 사상』(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9쪽.

련이 없는 교리인가?

필자(筆者)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해답을 주고자 본 논서(論書)를 쓰게 되었다. 그리고 필자는 본 논서를 통하여 칼빈주의는 선교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선교신학의 교리임을 입증하려 한다. 결국 본 논서의 목적은 칼빈주의가 선교신학에 해로운 교리라는 종전의 왜곡된 고정 관념을 깨고 더 나아가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는 선교신학적 의미와 그 가치를 밝히는 데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논서를 통하여 칼빈주의가 선교신학에 불이익을 끼치는 교리라는 기존의 잘못된 오해를 잠재우고 오히려 칼빈주의가 선교신학의 중심을 잡아 주는 유용(有用)한 교리임을 밝히려는 것이다.

그러나 오해는 없어야 하겠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때까지 진행되어 온 칼빈주의의 구원론적 해석에 기초하여 그것을 선교신학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겠다는 것이지, 이 때까지 진행되어 온 칼빈주의의 연구 결과나 그 방향을 완전히 뒤엎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필자는 이 과정에서 칼빈주의와 선교신학을 하나로 묶어 주는 신학적 접촉점(a theological point of contact)을 제시함으로써, 지금까지 주장된 칼빈주의에 대한 변호에 더욱더 큰 힘을 실어 주고, 더 나아가 칼빈주의는 선교신학에 해로운 신학이라는 이 때까지의 잘못된 고정 관념(固定觀念)을 깨뜨리려 한다. 아무쪼록 본 논서를 통하여 '칼빈주의 선교신학'(Calvinistic Missiology)의 새로운 장(場)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한다.³⁾

3) 이 부분은 필자가 미국 인디애나(Indiana) 콘콜디아(Concordia) 신학대학원의 철학 박사 과정(Ph.D. in Missiology)에서 청강했던 두 가지 수업 내용에 많은 혜택을 입고 있다. 첫번째 것은 카메론 매켄지(Cameron A. MacKenzie) 교수가 지도한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바라 본 종교개혁"(Reformation in Missiological Perspective)으로 수업 기간은 2006년 9월부터 12월까지였으며, 특별히 10월 17일(화)과 19일(목) 양일(兩日)간의 강의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두 번째 것은 슐츠(K. Deltev Schulz) 교수가 인도한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칭의와 성화"(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in Missiological Perspective)였고, 수업 기간은 2007년 3월부터 5월까지였다.

II. 칼빈주의는 선교신학을 죽이는 신학이다?

칼빈주의를 선교신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경우가 거의 드물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서술한 바이다. 그렇다면 왜 그런가? 선교신학의 관점에서 칼빈주의를 바라본 연구 사례가 이처럼 희박하게 된 이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칼빈주의 연구는 우선 조직신학 분야에 속한 것이라는 고정 관념 때문이고, 둘째, 칼빈주의는 예정론 때문에 선교신학에 아무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무의미한 교리라는 종전의 오해이다. 따라서 "칼빈주의도 선교신학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거의 부정적이다.

특별히 두 번째 이유는 매우 심각하다. 왜냐하면 선교와 관련하여 칼빈주의가 도전받고 있는 가장 심각한 주제가 바로 예정론이기 때문이다.⁴⁾ 이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모든 인간이 영원한 선택(election)과 영원한 버림(abandonment)으로 나누어졌다는 이중 예정론(double predestination)은 칼빈주의를 선교신학적으로 해석하는 데 결정적인 약점으로 인정되어 왔다. 심지어 어떤 이는 칼빈주의를 강하게 비판하여 그것을 심지어 이단(異端) 교리로 오도(顛導)하기도 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칼빈주의는 선교에 아무런 공헌을 남기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⁵⁾

4) 어떤 경우 '전도'와 '선교'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으나, 필자는 '전도'와 '선교'를 '국내 사역'(전도)과 '국외 사역'(선교)이라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더 나아가 '선교'를 '전도'보다 좀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한다. 참고: David J. Bosch, *Believing in the Future: Toward a Missiology of Western Culture* (Valley Forge: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5), p. 17; David J. Hesslegrave, *Today's Choices for Tomorrow's Mission*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0), p. 132.

특별히 웨스턴 복음주의신학교(Western Evangelical Seminary)의 윈코프(M. B. Wynkoop) 교수는 “구원의 결과가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복음 전파의 긴급성을 약화시킨다.”⁶⁾고 말하면서 칼빈주의를 선교의 필요성과 전도의 동기 부여를 추락(墜落)시키는 해로운 교리라고 설명했다. 계명대학교의 황재범 교수도 1907년 9월 17일에 채택된 한국 장로교단의 최초 교리인 “12신조”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장로교 선교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칼빈주의 신조를 작성치 못한 이유가 바로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는 선교신학적 약점에 있었다고 주장했다.⁷⁾ 물론 이러한 해석은 칼빈주의가 적극적인 선교 사업의 열망을 약화시키고 동시에 우리의 선교 사역에 대한 관심을 축소시키는 해로운 교리라는 선입관과 오해에서 나오는 편협(偏狹)된 해석이다.

그렇다면 정말 칼빈주의는 조지신학의 분야에서만 다루어야 하는 고립된 신학 사조인가? 정말 칼빈주의는 선교신학적으로는 아무런 의미와 가

- 5) 심지어 선교 역사학자 구스타브 바르넵(Gustav Warneck)과 교회사가 라투렛(K. S. Latourette)까지도 칼뱅이 선교에 끼친 영향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했을 정도이다. 그러나 데이빗 보쉬(David Bosch)는 칼뱅의 종교개혁 이후 개혁교회의 선교 활동이 저조했던 이유를 5가지로 정리하여 설명하면서 비록 외부로서의 선교 활동은 빈약했지만 칼뱅과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선교신학이 있었음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여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칼뱅의 선교신학은 훗날 청교도 선교 시대를 지나 19세기의 선교 세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일곱 가지로 항목화하여 강조했다. 칼뱅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의 선교신학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을 참고하라. Gustav Warneck, *Outline of a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ed., George Roberson, trans, J. Mitchell and C. Macleroy (Edinburgh: Morrison & Cibbs, 1901), pp. 8-9; Kenneth Scott Latourette, *Three Centuries of Advance: A. D. 1500-1800, vol. 3. A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 (New York: Harper & Brothers, 1939), p. 41; David J. Bosch,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ical of Mission*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 1993), pp. 239-61.
- 6) Mildred Bangs Wynkoop, *Foundation of Wesleyan-Arminian Theology* (Kansas City, Missouri: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67), p. 63.
- 7) 황재범, “대한장로교회신경 혹은 12 신조의 작성 및 수용 과정에 대한 연구”, 『기독교 사상』 (2006. 9), 217쪽.

치를 찾지 못하는 무용(無用)한 교리일까? 정말 칼빈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선교의 진정한 동기 부여를 막는 무의미한 교리일까? 그렇다면 정말 칼빈주의 교리는 선교에 불이익을 끼치는 교리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제로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선교와 전도의 열정을 방해하는 교리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선교와 전도를 강화시키는 교리이다.⁸⁾

실제로 성경 속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은 칼빈주의를 형성함에 있어 결정적인 성경적 근거를 제공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확실한 선택론과 예정론에 입각한 사람이었다. 사실상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신학 이론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통하여 파생된 것도 바울의 신학에 빚진 바 크다. 그런데 그의 선교적 결과는 전무후무(前無後無)할 정도이다.⁹⁾ 그리고 역사적으로 위대한 선교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거의 칼빈

- 8) 우선 칼뱅 자신부터 선교사였다. 그는 브라질에 직접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였고, 칼뱅은 유럽에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프랑스인이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역한 선교사였다. 참고: Carl D. Stevens, *Calvin's Corporate idea of Mission* (Philadelphia: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1992), p. 165, 188, 202-03; Calhoun, David B. “John Calvin: Missionary Hero or Missionary Failure,” *Presbyterian Bulletin* 5 (1979): pp. 16-33; R. Pierce Beaver, “The Genevan Mission to Brazil,” in *The Reformed Journal*, Vol. 17, No. 6 (July 1967): 14-20.
- 9) 사실상 성경 속에 수록된 바울의 모든 편지들은 선교적 서신이다. 특별히 바울의 대작(大作) 로마서는 그 내용은 비록 교리적(doctrinal)이지만 저술 목적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선교 서신(a missiological epistle)이다. 로마서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서바나 지역 선교를 계획하면서(주후 57-58년경) 그 주변의 로마 교회로부터의 확실한 선교 지원을 부탁하기 위한 목적에서 쓴 서신이다(롬 15:22-24). 이 과정에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롬 1:1-7), 자기의 선교 대상을 밝히고(롬 1:8-17), 더 나아가 자기가 예수님께 직접 받아 선교 활동을 통하여 정립하게 된 자신의 신학을 정교하게 설명한 후(롬 1:18-15:13), 자기의 서바나 지역 선교 목적과 의도(롬 15:14-33)를 자세히 제시한 것이다. 참고: F. F. Bruce, *Paul: Apostle of the Heart Set Free*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8), p. 325; Krister Stendahl, *Paul Among Jews and Gentiles and Other Essays* (Philadelphia: Fortress, 1976), pp. 1-7; L. Ann Jervis, “The Purpose of Romans: A Comparative

주의자들이었다.¹⁰⁾ 이러한 상황적 근거만 보더라도 칼빈주의는 절대로 선교와 어긋난 교리가 아니다.

그래서 데이빗 보쉬(David Bosch) 교수는 “예정론에 대한 강조는 선교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촉발시켰다.”¹¹⁾고 평했고, 광신대학교 최정만 교수도 그의 책 『갈뎡의 선교 사상』 머리말을 통하여 “칼빈주의야말로 오히려 선교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했다며 칼빈주의가 절대로 선교의 저해 요소가 아님을 여러 방면으로 증거해 보였다.¹²⁾ 칼빈주의에 입각한 선교 활동을 주장해 온 제임스 팩커(James Packer) 교수 또한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나타난 주권적 예정이 절대로 전도와 선교를 향한 우리 인간의 열망과 책임을 희석(稀釋)시키기 위한 것이 아님을 설명했다.¹³⁾

그러나 이러한 변호는 아직도 칼빈주의를 혹평(酷評)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칼빈주의는 여전히 선교신학의 입장에서

Letter Structure Investigation,”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Series 5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1), p. 19; David J. Bosch,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Maryknoll, New York: 1993), p. 129.

10) 간단히 몇 사람 예를 들어 보자. 일단 영국과 스코틀랜드에 커다란 부흥을 가져다 준 청교도들(puritans)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후예인 존 녹스(John Knox), 토마스 카트라이트(Thomas Cartwright), 리처드 십스(Richard Sibbes),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 매튜 헨리(Matthew Henry), 존 오웬(John Owen), 또한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코튼 매더(Cotton Mather), 조지 윗필드(George Whitefield), 인도에 선교하였던 윌리엄 케리(W. Carey), 마틴(Martyn), 아프리카 선교의 리빙스톤(Livingstone)과 중국에는 모리슨(Morrison), 남양 선교에는 페이튼(Paton) 등. 이와 같이 칼빈주의 5대 교리 이후 개신교 선교 사업에 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이름을 들추어 보면 그들은 모두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David J. Bosch,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ical of Mission*, p. 258.

12) 최정만, 『갈뎡의 선교 사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9쪽.

13) James I. Packer, *Evangelism and the Sovereignty of God*, pp. 22-23.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 그럴까? 그 이유 중 하나는 그 모든 변호가 칼빈주의와 선교신학을 제대로 연결시켜 주는 ‘신학적 접촉점’(a theological point of contact)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시된 변호이기 때문이다. 둘 사이를 연결시키는 신학적 접촉점이 없는 변호는 아무래도 설득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때까지 제시된 많은 신학자들의 변증과 변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칼빈주의는 선교신학 분야에 있어서 그 신학적 의미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때까지 제시된 칼빈주의의 변호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칼빈주의와 선교신학을 이어 주는 신학적 접촉점을 찾아 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며 그것을 통하여 칼빈주의와 선교신학이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교리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만 한다면, 칼빈주의는 선교신학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칼빈주의와 선교신학은 서로 어떤 신학적 접촉점을 가지고 있을까?

III. 칼빈주의와 선교신학의 접촉점

칼빈주의가 선교를 방해하는 신학 사조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칼빈주의와 선교신학 사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학적 접촉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칼빈주의와 선교신학이라는 분야의 신학적 접촉점을 찾아 내고 그것을 강조함으로써 칼빈주의는 선교신학의 중심 교리임을 확인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칼빈주의 5대 교리와 선교신학을 하나의 맥(脈)으로 이어 주는 신학적 접촉점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 신학적 접촉점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神之主權: Sovereignty of God)이다.

“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신학 개념이 칼빈주의와 선교신학을 잇는 신학적 접촉점이 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칼빈주의 5대 교리와 선교 신학 둘 다 공통적으로 그 신학의 근본 출발점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신학 개념에 두고 있다는 데서 발견된다.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하나씩 고찰해 보기로 하자.

IV. 칼빈주의의 중심 개념

일반적으로 칼빈주의의 중심 개념을 이중 예정론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칼빈주의의 핵심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중 예정론은 칼빈주의의 중심 개념이 아니다. 그렇다면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중심 개념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칼빈주의 5대 교리의 핵심 주제는 이중 예정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神之主權: Sovereignty of God)이다. 여기에 칼빈주의의 중심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 나타나는 반전(反轉)이 있다.

우리가 이 때까지 알고 있는 이중 예정론은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중심 주제가 아니다. 이중 예정론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신학적 산물(a theological outcome)이며 논리적 귀결점(a logical terminal)이고, 동시에 최종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a process for the destination)이지, 결코 칼빈주의 5대 교리의 근본 주제는 아니다. 따라서 이중 예정론은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핵심을 잘 드러내도록 인도하는 촉매제(觸媒劑)이다.¹⁴⁾

이러한 사실은 칼빈주의의 출발점인 장 칼뱅(John Calvin)이 그의 『기독교강요』

14) Henry R. Van Til,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Philadelphia, Pennsylvania: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59), p. 49.

교강요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초판(初版)에서 이중 예정론 자체를 아예 다루지 않은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¹⁵⁾ 그래서 엠마누엘 스틱베르거(Emanuel Stickelberger) 교수는 “이중 예정론이 『기독교강요』의 중심적 교리라면, 이 교리를 제3권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지는 않았을 것이다.”¹⁶⁾ 고 했으며, 프랑코이스 웬델(Francois Wendel)은 “이중 예정론은 칼빈주의 신학의 중심 개념이 아니라 갈뱅 자신의 모든 신학이 정리된 후에야 뒤늦게 독립적으로 나온 교리”¹⁷⁾ 라고 했고, 광신대학교 최정만 교수도 역시 선택과 예정이라는 항목은 갈뱅이 후대에 발전시켜 첨가한 교리임을 밝히면서 이중 예정론은 칼빈주의의 출발점이 아니고 칼빈주의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을 말할 때 논리적으로 도달한 귀결점임을 강조했다.¹⁸⁾

이러한 주장에 힘입어 폴 툴리히(Paul Tillich)는 “이중 예정론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나타내기 위한 일종의 논리적 연상(a logical implication)일 뿐 그 이상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¹⁹⁾ 고 했다. 로레인 뵈트너(Lorraine Boettner) 교수도 “이중 예정론이 지극히 위대하고 복된 성경의 진리이지만 결코 칼빈주의의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²⁰⁾ 라고 했

15) 1536년, 1539년, 1543-1550년, 그리고 1559년까지 갈뱅이 어떤 과정을 거쳐 『기독교강요』의 내용과 구조를 변천하며 증보해 왔는지에 대하여 Ford Lewis, *Battles, Analysis of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of John Calvin* (New Jersey: P & R Publishing, 1980), p. 15에 나타나 있는 도표를 참조할 것.

16) Emanuel Stickelberger, *John Calvin*, 박종숙·이은재 역, 『하나님의 사람 갈뱅』 (서울: 나단출판사, 1992), 43쪽.

17) Francois Wendel, *Calvin: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Philip Mairet tran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s, 1997), p. 263.

18) 최정만, 『갈뱅의 선교 사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185-86쪽.

19) Paul Tillich, *A Complete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New York and Evanston: Harper & Row, Publishers, 1968), p. 267.

20) Lorraine Boettner, *The Reformed Doctrine of Predestination*, Eighth Edition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4), p. 6.

다. 헨리 반 틸(Henry R. Van Til) 교수도 예정론은 칼빈주의 5대 교리의 핵심이 아니며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만이 칼빈주의 신학의 출발점을 강조했다.²¹⁾ 헨리 미터(H. Henry Meeter) 교수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실수 중의 하나는 이중 예정론에 의한 선택 교리를 칼빈주의의 근본 원리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중 예정론은 어디까지나 칼빈주의의 논리적 결론일 뿐이지 근본 주제가 아니다.”²²⁾라고 설명했다. 김남식 박사 또한 “칼빈주의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 중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용어가 따르게 마련이다.”²³⁾라고 했다. 김성환 목사도 “예정론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교리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중심 사상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중심 사상이다. 예정 교리도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²⁴⁾고 했다. 이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주장을 통하여 볼 때, 칼빈주의 5대 교리의 핵심 주제는 이중 예정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V. 선교신학의 중심 개념

이제 칼빈주의의 중심 개념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선교신학의 중심 개념은 무엇인가? 역사를 통하여 선교신학의 중심 개념은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제1차 세계 대전 이후로 선교신학의 중심점은 한 가지 개념으로 정리되었다. 바로 ‘미시오 데이’(Missio Dei:

21) Henry R. Van Til,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pp. 50-51.

22) H. Henry Meeter, *Calvinism: An Interpretation of its Basic Ideas* (Grand Michigan: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0), pp. 34-35.

23) 김남식 편, 『칼빈주의 연구』 (서울: 백학출판사, 1972), 1쪽

24) 김성환, 『칼빈주의 서설: 하나님의 주권』, 김남식 편, 『칼빈주의 연구』 (서울: 백학출판사, 1972), 13, 16쪽.

The Mission of God: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선교신학자들은 선교신학의 중심점을 이 ‘Missio Dei’에서 찾고 있다. 글자 그대로 ‘Missio Dei’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교로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교 사역을 강조한 신학 개념이다.²⁵⁾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그 중심 개념이다.

‘Missio Dei’라는 단어를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칼 하르텐슈타인(Karl Hartenstein)이다. 그는 1933년도에 『신학적 문제로서의 선교』(Die Mission theologisches Problem)라는 글을 통하여 이 단어를 사용하였다.²⁶⁾ 그 뒤 게오르그 뢰체돔(Georg F. Vicedom) 교수가 『하나님의 선교』(The Mission of God)라는 책을 통하여 ‘Missio Dei’는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적 선교를 뜻한다고 주장하여 칼 하르텐슈타인이 남겨 놓은 ‘Missio Dei’ 개념을 확고히 발전시켰다.²⁷⁾ 영국 버밍햄(Birmingham) 대학의 데이비스(J. G. Davies) 교수도 “선교란 선교 대상(교회, 사람)에 의하여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주체인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의하여 정의되어야 한다.”²⁸⁾고 주장했다. 이들 모두 선교에 있어 삼위일체 하나님

25)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은 에큐메니칼 운동 과정에서 구체화된 선교신학의 백미(白眉)이다. 1932년 칼 바르트(K. Barth)가 브란덴부르크 선교 대회에서 선교를 하나님의 활동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칼 하르텐슈타인(Karl Hartenstein)이 칼 바르트의 주장에 기초하여 Missio Dei라는 단어를 공식화했다. 그 뒤 IMC의 탐바람 대회(1938), IMC 빌링겐 대회(1952)를 거치면서 그 질정에 달하게 된다. Missio Dei라는 개념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고하라. David J. Bosch,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ical of Mission*, pp. 389-92.

26) Karl Hartenstein, “Theologische Besinnung,” *Mission zwischen Gestern und Morgen*, ed. W. Freytag (Stuttgart: Evangelischer Missionsverlag, 1952), p. 54.

27) Georg F. Vicedom, *The Mission of God*, Gilbert A. Thiele and Dennis Hilgendorf trans (Saint Louis: Concordia Theological House, 1965), p. 4-5.

28) J. G. Davies, *Worship and Mission*, 金昭暎·洪哲華 共譯, 『禮拜와 宣敎』 (서울: 大韓基督敎書會, 1978), p. 33.

께서 주권적으로 직접 움직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주장하였다. 이후부터 'Missio Dei' 라는 말은 선교신학의 중심 개념이 되었다.²⁹⁾

이와 같이 'Missio Dei' 라는 말은 현재 대부분의 선교신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선교신학의 중심 신학 개념이다. 그런데 이 'Missio Dei' 라는 말이 내포(內包)하고 있는 실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교이다. 'Missio Dei' 의 중심 의미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교라는 주장은 구원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임을 주장하는 칼빈주의 교리와 완전히 동일한 선상에서 있는 말이다. 이러한 주장은 칼빈주의와 선교신학이 모두 같은 출발점을 가지며 동일한 신학적 기초와 뿌리 속에서 자라난 신학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준다.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이 서 있다.

VI. 똑같은 토양: 하나님의 주권 그러나 두 가지 나무: 구원과 선교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칼빈주의의 중심 개념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이다. 동시에 선교신학의 근본 주제가 되는 'Missio Dei' 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 선교' 를 말하고 있다. 다만 칼빈주의는 '구원' 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고, 'Missio Dei' 는 '선교' 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칼빈주의는 '구원의 주권' 이며 'Missio Dei' 는 '선교의 주권' 이다. '구원' 과 '선교' 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들어 있는 것이다. 결국 칼빈주의와 선교신학 둘 다 모두 '하나님의 주권' 이라는 공통 분모 속에 들어 있음을 알게 된

29) J. Andrew Kirk, *What Is Mission?: Theological Exploration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2), p. 25.

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이라는 신학 개념은 칼빈주의와 선교신학을 하나로 이어 주는 가장 확실한 신학적 접촉점이 된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칼빈주의와 선교신학은 똑같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토양(土壤)에서 자라난 나무들이다. 그런데 칼빈주의 교리라는 나무는 자라는 과정에서 'TULIP' 이라는 다섯 가지를 뺏게 되었고, 선교신학이라는 나무는 'Missio Dei' 라는 줄기를 타고 자라난 것이다. 그래서 얼핏 보면 두 나무가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아래로 내려가 그 뿌리를 찾아가면 두 나무가 동일하게 같은 토양, 즉 '하나님의 주권' 이라는 토양 속에서 같이 자라난 나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와 선교신학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또한 둘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해 속에서 상호 보완하며 협력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결국 칼빈주의가 절대로 선교신학과 상충(相衝)되는 신학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중심 핵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이라면 선교신학의 중심 핵심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이기 때문이다.³⁰⁾ 이러한 공통점은 선교신학적 입장에서 본 칼빈주의에 대한 기존의 오해와 흑평(酷評)을 잠재우기에 충분한 것이며 더 나아가 칼빈주의를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 준다.

30) Johannes Verkuyl, *Inleiding in de nieuwere Zendingwetenschap*, trans, Dale Cooper, *Contemporary Missiology: An Introduction*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8), p. 5.

VII. 칼빈주의 선교신학: TULIP 선교신학

앞에서 고찰된 “하나님 주권 속의 칼빈주의와 선교신학”이라는 관계성은 우리로 하여금 이른바 ‘칼빈주의 선교신학’(Calvinistic Missiology) 또는 ‘톨립 선교신학’(TULIP Missiology)이라는 새로운 신학 용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그래서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 용어가 이제는 선교신학 분야에서도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칼빈주의와 선교신학은 같은 뿌리 속에서 자라난 형제 신학이기 때문이다. 만약 칼빈주의의 5대 교리가 정말로 선교에 방해가 되는 교리라면 선교의 신학적 기초가 되는 선교신학에도 방해가 되어야 하고 선교신학의 중심 개념인 ‘Missio Dei’ 와도 불일치하는 곳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 속에서 들은 너무나도 흡사하다. 그러므로 이제 칼빈주의가 우리의 선교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교리라는 종전의 잘못된 해석과 인식은 배격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신학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바로 ‘칼빈주의 선교신학’ 즉 ‘톨립 선교신학’이다.³¹⁾

31) Fred H. Klooster, “Missions-The Heidelberg Catechism and Calvin,” *Calvin Theological Journal*, Vol. 7 No. 2 (November, 1972): pp. 181-208, Paul R. House & Gregory A. Thornbury, *Who Will Be Saved?* (Wheaton, Illinois: Crossway Books, 2000), p. 17.

VIII. 나가는 말

이제 정리해 보자. 결국 칼빈주의는 절대로 선교신학에 방해가 되는 교리가 아님이 증명되었다. 오히려 칼빈주의는 선교신학에 새로운 신학적 기초를 제공하는 교리이다. 그러므로 만약 칼빈주의가 선교신학에 해악(害惡)을 끼치는 교리라면, 이 때까지 선교신학의 중심 개념이 되어 온 ‘Missio Dei’도 선교에 불이익을 끼치는 개념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칼빈주의의 주제 교리와 선교신학의 핵심 개념이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공통 분모 속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선교는 모름지기 구원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칼빈주의는 지극히 구원론적 교리이다. 그리고 선교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교에 중심을 두고 있는데 칼빈주의도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에 중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칼빈주의와 선교는 불가분의 관계성 속에 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는 더 이상 절대로 우리의 선교에 발목을 잡는 이상한 교리가 아니다. 이와 같은 이해 속에서 우리는 칼빈주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칼빈주의 속에서의 새로운 선교신학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서 구원을 전파하는 선교신학이다. 즉 ‘칼빈주의 선교신학’ 또는 ‘톨립 선교신학’이다.³²⁾

32) 칼빈주의 선교신학을 칼빈주의의 5대 교리인 톨립(TULIP)이라는 신학적 틀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적 타락(T)은 선교의 궁극적 필요성, 무조건적 선택(U)은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제한적 속죄(L)는 성자 예수님의 특별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I)는 성령 하나님의 중생 역사, 성도의 견인(P)은 선교의 결과와 성취이다. Anthony A. Hoekema, “The Missionary Focus of the Canons of Dort,” *Calvin Theological Journal*, Vol. 7, No. 2 (November 1972): pp. 209-20.

참고 문헌

(국내 문헌)

- 김성환. "칼빈주의 서설: 하나님의 주권". 김남식 편. 『칼빈주의 연구』. 서울: 백합출판사, 1972.
- 김남식 편. 『칼빈주의 연구』. 서울: 백합출판사, 1972.
- 최정만. 『갈뎡의 선교 사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 황재범. "대한장로교회 신경 혹은 12 신조의 작성 및 수용 과정에 대한 연구". 『기독교사상』(2006. 9): 217쪽.

(번역 문헌)

- Sticklberger, Emanuel. *John Calvin*. 박종숙·이은재 역. 『하나님의 사람 갈뎡』. 서울: 나단출판사, 1992.
- Davies, J. G. *Worship and Mission*. 金昭暎·洪哲華 共譯. 『禮拜와 宣敎』. 서울: 大韓基督教書會, 1978.

(외국 문헌)

- Ann Jervis, L. "The Purpose of Romans: A Comparative Letter Structure Investigation."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Series* 5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1.
- Battles, Ford Lewis. *Analysis of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of John Calvin*. New Jersey: P & R Publishing, 1980.
- Boettner, Loraine. *The Reformed Doctrine of Predestination*. Eighth Edition.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4.
- Bosch, David J.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ical of Mission*.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 1993.

- Bosch, David J. *Believing in the Future: Toward a Missiology of Western Culture*. Valley Forge: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5.
- Bruce, F. F. *Paul: Apostle of the Heart Set Free*.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8.
- Calhoun, David B. "John Calvin: Missionary Hero or Missionary Failure." *Presbyterian Bulletin* 5. 1979: pp. 16-33.
- Hartenstein, Karl. "Theologische Besinnung." *Mission zwischen Gestern und Morgen*, ed. W. Freytag. Stuttgart: Evangelischer Missionsverlag, 1952.
- Henry Meeter, H. *Calvinism: An Interpretation of its Basic Ideas*. Grand Michigan: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0.
- Hesslegrave, David J. *Today's Choices for Tomorrow's Mission*.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0.
- House, Paul R. & Thornbury, Gregory A. *Who Will Be Saved?*. Wheaton, Illinois: Crossway Books, 2000.
- Kirk, J. Andrew. *What Is Mission?: Theological Exploration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2.
- Klooster, Fred H. "Missions-The Heidelberg Catechism and Calvin," *Calvin Theological Journal*, Vol. 7, No. 2 (November 1972): pp. 181-208.
- Latourette, Keneth Scott. *Three Centuries of Advance: A.D. 1500-1800, vol. 3. A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 New York: Harper & Brothers, 1939.
- Packer, James I. *Evangelism and the Sovereignty of God*. Chicago,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67.
- Pierce Beaver, R. "The Genevan Mission to Brazil." in *The Reformed Journal*, Vol. 17, No. 6 (July 1967): 14-20.
- Stendahl, Krister. *Paul Among Jews and Gentiles and Other Essays*. Philadelphia: Fortress, 1976.
- Stevens, Carl D. *Calvin's Corporate idea of Mission*. Philadelphia: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1992.

Tillich, Paul. *A Complete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New York and Evanston: Harper & Row, Publishers, 1968.

Van Til, Henry R.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Philadelphia, Pennsylvania: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59.

Verkuyl, Johannes. Inleiding in de nieuwere Zendingwetenschap. trans, Dale Cooper. *Contemporary Missiology: An Introduction*.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8.

Vicedom, Georg F. *The Mission of God*. Gilbert A. Thiele and Dennis Hilgendorf trans, Saint Louis: Concordia Theological House, 1965.

Warneck, Gustav. *Outline of a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ed., George Roberson. trans, J. Mitchell and C. Macleroy. Edinburgh: Morrison & Cibbs, 1901.

Wendel, Francois. *Calvin: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Philip Mairet tran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s, 1997.

Wynkoop, Mildred Bangs. *Foundation of Wesleyan-Arminian Theology*. Kansas City, Missouri: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67.

{강의 자료}

학 교: Concordia Theological Seminary (Fort Wayne, IN U.S.A.)

교 수: MacKenzie Cameron

강의제목: *Reformation in Missiological Perspective*

기 간: 2006년 9월-12월 (특별히 10월 17일, 19일의 강의 내용)

학 교: Concordia Theological Seminary (Fort Wayne, IN U.S.A.)

교 수: Deltev Schulz, K.

강의제목: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in Missiological Perspective*

기 간: 2007년 3월-5월

■ Abstract ■

Toward a TULIP Missiology (Calvinistic Missiology)

Chul Woong Kim

Can we shape a Calvinistic Missiology?

What would a TULIP Missiology look like?

TULIP has been five pillars to sustain a house of Calvinism. However, most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Missiology have spoken ill of TULIP. Because one of the derivative applications of TULIP is predestination (which means that salvation was predestined by God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creation) may assume that a Calvinistic Missiology well lack urgency. It sounds to us that we do not have to evangelize and carry out any mission work.

However, this kind of understanding results from misunderstanding the basic theological core of TULIP. The basic

Chul Woong Kim graduated from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M.Div. & Th.M.) in Korea, 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M.A.T.S.) and Concordia Theological Seminary(Ph.D.) in U.S.A. He now serves as an associate pastor at New Jersey Chodae Community Church in U.S.A.

core of TULIP is not predestination but sovereignty of God. Predestination is a theological byproduct which emphasizes the sovereignty of God, and is not meant to give license to laziness to the Christian.

There is a theological point of contact between TULIP and Missiology. The point of contact between TULIP and Missiology is the sovereignty of God which implies the lordship of God.

Is the sovereignty of God really at the core of Missiology as well? The answer is an absolute "Yes!" The reason is that Missio-Dei is the main theological core of modern Missiology. The concept of Missio-Dei is mission of God, mission by God, and mission in God. In short, Missio-Dei is a Triune-God centered theological concept. It also means that mission assumesthe sovereignty of God. At glance, TULIP and Missiology seem to be different. However, both were raised in the same internal root (the sovereignty of God).

Therefore, any aggressive question toward TULIP in the light of mission must be carefully re-examined in the light of the concept, Missio-Dei, which is deeply related to the sovereignty of God.

The following is a frame to highlight TULIP Missiology.

T: Total depravity and inability

This presents us with an urgent impetus to Mission. What it means is 1) that since the fall humans are under the curse of

sin, and 2) that humans are controlled by a wrong principle and 3) that humans are unable to seek God or salvation. The whole of a human's being has been affected by sin. Humans are estranged from God. Humans can do nothing seeking to their salvation. It is the spiritual deadness. Humanity is blind to all pious things(Ezekiel 37). A bird with a broken wing is free to fly. However, it cannot because of its broken wing. Humanity is free to see God. However, humanity cannot because of its depravity and inability.

U: Unconditional election

Election is the work of the Father God. No aspect of this unconditional election is more emphasized than that of God's absolute sovereignty. God could have chosen to save all. God could have chosen to save none. However, God did neither. Instead, God has chosen some to save. God has simply left non-elect in the sinful situation as they were. We never know why. We also do not have to know it. It is up to God (Romans 9:20). It is solely for God's own good pleasure and sovereign will. God has no obligation to save all. The doctrine of the predestination came from this theological system. The non-elect are simply left in their previous state. Election is not determined by human's will but God's will. Election itself is not salvation, but it is for salvation. Those chosen (Unconditional election) are not saved until they are affected by Jesus Christ (Limited atonement) and regenerated by Holy Spirit (Irresistible grace).

L: Limited and particular atonement

Atonement is the work of Jesus Christ. Jesus Christ only died for some chosen people who were elected by God. Those chosen by God cannot be saved until they are affected by Jesus Christ. Salvation depends on God's election. For this reason, Christ's saving work is limited by God's limited unconditional election. Since not all men will be saved by Christ's saving work, a limitation must be admitted. If Christ's work was intended to save all, God would be loser who did not complete his plan. The value of the saving work of Jesus Christ is universal. However, the effect of the saving work of Jesus Christ is limited. 1 Timothy 2:4-6 does not mean that Christ died for all men without distinction (He died for Jews, Gentiles, Korean...). It never means that Christ died for all men without exception (He died for all humans).

I: Irresistible and efficacious grace the work by Holy Spirit


It is the work of Holy Spirit. Two great acts (election and atonement) cannot complete the work of salvation until those chosen people are regenerated by the irresistible grace of Holy Spirit. Holy Spirit never fails to bring the chosen people to salvation. Although humanity is sinful enough to reject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otal depravity and inability), the chosen are drawn by an irresistible calling. Of course, those who are not chosen experience a general calling, which is resistable.

P: Perseverance of Christians

It is the result of the mission being carried out by God. Those who are elected by God, atoned for by Jesus, and regenerated by the Holy Spirit keep staying in faith by the protection of Triune God. True believers can commit sin again. However, the sin does not cause them to lose their salvation. Nothing can separate the saint from God's love. (Luke 15.) Those who were once chosen by God cannot fall away and be lost by God. C. H. Spurgeon: The believer, like a man on shipboard, may fall again and again on the deck. However, he will never fall overboard.

In sum, T and P show not only urgent need and reason for mission but also undisputed result of mission. Both (T, P) identify the starting point and the final destination of mission. U, L, and I show Triune-God's saving work and how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 share the work.

In conclusion, it is inaccurate to say the doctrine of TULIP absolute prevents us from devoting our effort into mission. Rather, TULIP, seen from a different angle, compels us into mission. The best example is the life of St. Paul. He was a person who gave many doctrinal resources for the doctrine, TULIP. He was also sure that he was predestinated by God for salvation and called by God to be a missionary for Gentiles.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never bothered him. Rather, his sense of God's sovereignty spurred his missionary endeavor.

We need to reconsider the real meaning of TULIP in the light of the sovereignty of God for salvation before saying that TULIP contradicts mission. 

Key Words

Calvin, Calvinism, Missiology, Missio Dei, Sovereignty of God, Predestination, TULIP